

셀트리온, 신종플루 치료항체 개발

연세대학교와 공동개발·임상시험 협약 ... 2010년 하반기 상업화 추진

셀트리온이 신종플루 치료 항체 개발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과 신종플루 치료용 항체를 공동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신종플루 회복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공급하는 한편, 개발된 신종플루 치료용 항체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혈액 시료로부터 신종플루에 중화능력이 있는 항체를 선별하고, 신종플루 관련 세포주 개발 및 대량생산을 담당하고, 전임상 진행과정에서 임상 스폰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사는 2009년 말까지 신종플루에 중화능력이 있는 항체를 개발해 전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2010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종플루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과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6>